

충재 권벌 선생 닭실마을 입향 500주년 기념식 거행

충재 권벌 선생 닭실마을 입향 500주년 기념식이 10월 8일 9시 50분부터 닭실마을 충재 종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수 국회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 김병일 도산서원장, 권석한 안동문화원장, 권영창 전 영주시장, 권오상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총장, 권갑현 대종회 편집위원장, 권행완 대종회 편집국장, 권오돈 주밀공파종회장, 권세목 복야공파종회장,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와 학봉 종택, 서애 종택, 양진당 종택, 노송정 종택(퇴계 본가) 등 전국 각지의 문중에서 700여 명의 내외 귀빈과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먼저 추최 측은 수많은 내빈들이 등록 시 유곡종 중에서 밟간한 충재 권벌 선생 입향 오백주년 기념식 책자와 봉화군청과 충재 권벌 선생 입향 5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봉화 닭실 마을 책자를 선물로 증정하고 떡과 타월을 비롯하여 비타민과 거마비까지 쟁겨주었다.

다음은 종친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입구에 세워진 입향 5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종택에서 기념비로 갈 때와 기념비에서 종택으로 올 때 농악대의 행진은 닭실마을 입향 500주년 기념 행사에 걸맞게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제막식을 마치고 청암정 앞으로 이동한 권용철 주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자그마한 소나무를 기념식수했다. 이어서 초대가수 권미희씨가 축하 공연을 했다.

다음은 권진우(창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 선생의 주손인 선생의 사회에 맞춰 개회와 함께 국민의례와 내빈을 소개하고, 2018년 9월부터 500주년 기념 행사 계획을 협의하기 시작해서 2020년 9월 25일 기념비 건립과 기념식 일정을 확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으며, 기념비문을 작성한 김언종 교수 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권규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은 충재 선조께서 1520년에 안동 도계촌에서 닭실로 이거했으며, 현재 후손 4000여 명이 기념비 건립을 위해 2억 원의 성금과 물품을 쾌척해 주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미루어 왔던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어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영철 충재 19대 주손은 뿐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에 그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도 성하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에 흘러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한층 더 용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선조께서 남기신 유지를 받들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욱 더 옮겼을 만큼이나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축사가 이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충재 선생은 바른소리하는 옮겼을 선비였다. 옮겼은 선비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자살율이 세계 6위, 출산율이 세계 10위이다. 충재 후손들은 4000여 명이라고 하니 이런 문중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500주년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충재 선생은 재상 중의 재상이었다. 퇴계 선생도 높이 평가했다. 닭실의 후손들이 훌륭하신 선조의 뜻을 받



닭실마을 입구에 세워진 입향 500주년 기념비 제막식



청암정 앞뜰에서 기념식수



농악대의 행진



권영철 주손과 권규 위원장(오른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들어 봉화를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충재 선생의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후세들이 빛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은 봉화 닭실마을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닭실의 유곡문중이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으로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일 도산서원장은 첫째 충재 선생은 기묘사화 후 3계급이 강등되고 그때 닭실로 와서 몸 닦고 공부하고 후손 이끌어 영남 최고의 문벌로 성장했다. 두 번째는 퇴계 선생께서 존경하신 분을 골라 행장을 썼는데 충재선생의 행장을 썼다. 충재 선생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겸손하고 질박하게 생활했고 공부를 아주 좋아했으며,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 좋은 글 나오면 후손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그 교훈이 오늘의 닭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창설재 권두경 선생이 도산서원 원장을 하면서 영남의 선비들을 이끌었는데 권진우 창설재 12대 주손께서도 교장으로 퇴직하고 도산서원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인연이 깊어져 또한 입향 500주년 축사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권해옥 대종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충재(冲齋) 권벌 선생이 안동 도촌(道村)에서 봉화 유곡(酉谷) 닭실마을로 입향한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를 준비하신 기념사업회 권규 위원장님과 닭실종가 권용철 주손(胄孫)님을 비롯한 종종의 모든 족친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경향각지에서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충재 선생이 당대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관이 말하듯이 머리를 베고 가슴에 구멍을 낸다 해도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을 무쇠와 같은 사람이며 공(公)적인 일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우곡충정으로 임금에게 말해야 하고 옳다고 생각한 바를 꾼밀없이 그대로 직간하는

울곳은 선비였습니다. 그 절의는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었고 늄름한 기상은 추상같았고 절개를 굳게 지키는 대장부였습니다. 이런 충재 선생을 두고 정광필은 권벌은 어려운 때를 당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글 읽기를 좋아하고 특히 근사록(近思錄)은 늘 소매 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성현의 말이나 행실이 쓰인 대목을 보면 반드시 아들과 조카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선생이 뿐만 그 씨앗은 닭실의 사표가 되어 후손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집안 대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500년 동안 선조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지켜온 유곡종중 후손 여러분에게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충재선생의 얼을 본받고 굳게 실천하여 더 큰 인물들과 국가의 동량들이 많이 배출되고 더욱 빛나는 유곡종중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축사에 갈증합니다. 라고 권오상 사무총장이 대독했다.

권세목 복야공파종회장은 닭실마을에서 대한민국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김언종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충재 선생은 늙어서까지 책 놓지 않고 공부했다. 특히 근사록은 일생동안 주머니에 넣고 읽고 다녔다. 충재 선생의 사상적 위상은 15-16세기에 성리학 이론의 실천가였다는 점이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첫째 학자는 시무를 몰라서는 안 되고 통찰해야 하며, 현안에 무식하면 안 된다. 이는 성리학을 사변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다. 둘째는 진보 없는 것은 용기 없는 것이다. 이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 안 하면 비겁한 것이다. 셋째는 사적인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욕망에 굴복하면 인 되고 단단한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넷째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째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강연을 끝으로 기념식을 모두 마치자 참석자들은 기념식장과 청암정에서 추최 측이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후 참석자들은 충재박물관을 관람하고 석천정, 청암정 등 마을 일원을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것으로 50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쳤다.

권행완 편집국장

제60사단 권율부대 권율역사관



백자성 사단장이 권해옥 회장과 권영하 부회장에게 부대 현관에 비치된 부대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권해옥 회장, 백자성 사단장, 권순영 국민의 힘 고양시 갑 당협위원장(왼쪽부터)



권율역사관

기백을 닦은 최정에 보병사단이 되려고 미래 전장 환경 대비는 물론 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하면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율부대는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을 주도한 충장공 권율 도원수를 비롯한 선조님들의 숭고한 위업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사수하며, 조국을 수호하는데 최선봉이 될 것을 다짐하며 2002년 9월 1일 권율부대로 명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순영 국민의 힘 고양시 갑 당협위원장과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도 참석하여 부대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한 후 향후 고양시와 권율부대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행완 편집국장

대전 뿌리공원 효문화 축제



안동권씨 입장



전통음식 요리 경연



권율장군 퍼즐 만들기 프로그램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대전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에서 안동권씨를 비롯하여 250여 개 성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안동권씨는 입장식에서 안동권씨라고 쓰여진 기를 높이 앞세우고 관복차림과 도포차림으로 시조 태사공 산소 사진과 권율을 도원수 영정 그리고 안동권씨 로고를 들고서 입장식 퍼레이드에 참여하였다. 입장식에서 안동권씨는 수많은 성씨 중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통음식 만들기에는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권용재 부회장의 박숙희 여사는 동서와 함께 출전하여 숨은 실력을 뽐내 당당히 입상하였고, 또한 105세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극진히 봉양하고 계시는 권선욱씨는 효행상을 수상했다.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충북 증평 좌구산 등반



안동권씨 서울산악회(회장 권영복)는 10월 16일(일) 319차 정기산행 일정으로 충북 증평에 위치한 좌구산(座龜山 657m)을 등반했다.

권영복 회장을 비롯한 권오준 전 산악회 회장, 권순용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순휘 산악회 총무, 권경탁, 권순길 대종회 이사 등 43명의 회원들은 정

기사행 안내에 따라 아침 8시에 교대역 14번 출구에 대기 중인 대형 버스를 타고 원정 산행에 나섰다.

좌구산은 산을 잘 타는 산꾼들에게나 알려졌을 뿐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증평의 숨은 명산이다. 좌구산에는 천문대를 비롯해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연휴양림도 조성되어 있어 찾는 이들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산이다. 일행은 하늘다리를 건너 가을을 만끽하며 호수 둘레길을 산책하고서 진천에 위치한 농다리 둘레길을 걸었다.

좌구산 자락에는 각고의 노력 끝에 59세에 과거에 합격하고 백이전을 11만 3천 번을 읽었다는 백곡 김득신의 묘소가 자리한다.

김득신이 독서할 때마다 1만 번이 넘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독서를 했다고 하여 그의 서재 이름은 억만재(億萬齋)라고 불렸다. 둔아이자 노력의 대명사인 김득신의 백곡집은 당대 선비들의 베스트셀러였다. 다산 정약용이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상하로 수천 년과 종횡으로 3만리를 다니면서 독서를 부지런히 하고 뛰어난 이로는 당연히 김득신을 유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할 정도였다. 좌구산 등반에서 뜻밖의 백곡 김득신도 만났다. 소중한 추억이다.

권행완 편집국장